“나라 없이는 종교도 없다”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추모 이어

광명사, 순국선열 위령 천도법회 봉행
진여원, 호국영령 및 보훈가족 위로해
운흥사, 영산대재 봉행 국태민안 기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코로나 기간에도 불교계의 추모 열기가 이어졌다. 사진은 광명사가 진행한 호국 · 순국선열 위령 천도법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코로나 기간에도 불교계의 추모 열기가 이어졌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는 6월 13일 경내 3층 지관전에서 ‘호국 · 순국선열 위령 천도대법회’를 봉행했다. 광명사 천도법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천태종 3대 지표인 애국불교를 실천하고자 봉행됐다.

법회는 한국전쟁 영령에 대한 헌화, 헌향, 추도사, 권공축원 아미타불, 추모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주지 춘광 스님과 정광사 주지 화산 스님, 동해사 주지 행주 스님,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미영 금정구청장, 김원종 한국전쟁 참전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 관계자와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회는 △삼귀의례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찬불가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헌화 및 분향 △국운융창기원 △개회사 △추모사 △추도사 △법문 △기원문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춘광 스님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스님과 백성들은 오로지 애국충정의 마음으로 자신의 귀중한 목숨까지 희생하며 이 나라를 지켜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 덕분에 오늘 자유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법요식은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애국불교 정신 실천으로 국가 없이는 종교생활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신 대조사님의 유훈에 따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앞으로 광명사는 21세기 새로운 불교운동을 실천할 것이다. 광명사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의 서원을 세우며, 자비실천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도 6월 10일 부산 화명동 현충공원 내 호국영령추모비 앞에서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했다. 올해 23회를 맞은 호국영령위령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 규모를 축소, 발열 체크 및 거리두기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됐다.

행사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남보타월 원장을 비롯해 권율정 부산지방보훈청장, 정명희 북구청장 등 내빈과 육군 제53사단 125연대 6대대와 유가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1부 호국영령위령재를 시작으로 2부 본 행사에서는 육법공양과 헌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이 이어졌으며 왕생극락 발원문, 내빈들의 인사말, 유공자 표창,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남보타월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령재 및 보훈 행사를 간소하게 지내게 되어 아쉬운 점이 많다. 내년에는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란다”며 “호국영령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보훈 가족들이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란다. 오랫동안 함께해 준 진여원 식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고성 천년고찰 **운흥사(주지 월암)**는 6월 19일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재를 경내 일대에서 봉행했다. 운흥사는 임진왜란 당시 6천여 명의 승병이 왜군과 전투를 벌인 호국도량이다. 매년 음력 3월 3일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방역에 따라 연기해 개최했다.

주지 월암 스님은 “국난이 있을 때마다 불교를 위시해 모든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하고 극복해 왔다”며 “호국영령을 기리며 국태민안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제 금불동우회 금산중고 장학금 전달

김제 지역의 대표적인 신행단체인 금불동우회(회장 박상준)가 종립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6월 15일 금산중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상준 회장과 장세군 수석부회장, 권태정 부회장과 장학생, 금산중 · 고등학교 박기남 교장, 박동창 교감 등이 참석했다.

당초 금불동우회 장학금은 부처님 오신날 금산사에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이날 전달하게 됐다.

이날 금불동우회는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며 학업과 불교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2명을 선발해 각각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상준 회장은 “장학금 수혜를 계기로 장래 불자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했다” 며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문화 여성들 어엿한 ‘2급 바리스타’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문화 전문법인 (사)착한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은 “지난 5월 9일 한국커피 협회 주관 2급 바리스타 자격증시험에 응시한 결혼이주여성 30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모악로타리클럽(회장 이일수)이 도내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글로벌 보조금 3만 2000 달러를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전문가가 되어 관련분야 내 취업이나 창업하는 꿈을 꾸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은 언어장벽과 전문자격증이 없어 취업이나 창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주 모악로타리클럽 이일수 회장은 “지역사회에 이주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정적 다문화 시대를 열어 가는 데 전주모악로타리 클럽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암사 〈묘법연화경〉 등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

전라북도는 6월 7일 순창 구암사(주지 지공)가 소장하고 있는 선문보훈, 묘법연화경, 불설관무량수경, 지장보살본원경과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을 도지정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선림보훈은 2권1책으로 발문 ‘宣光八年戊午(1378)二月書于宴晦菴’과, 간기 ‘留板忠州靑龍禪寺’의 기록을 통해 14세기 말 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시대에 충청도 충주의 천룡선사에서 간행된 목판으로 불교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다. 묘법연화경은 7권2책으로 발문에서 1405년 전북 고산 안심사(安心寺)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10행 19자 행격으로 보고됐다.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은 하나의 보살 몸에 세 개의 머리를 수직으로 올린 독특한 상으로 탑처럼 쌓아올린 3단의 머리는 티베트 계통의 종렬식 십일면 관음의 형식을 차용했다. 고려시대 후기 토속화된 혹은 지방화된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 불교미술의 다양한 측면을 엿볼 수 있는 등 불교사적, 공예적인 가치가 높다. 이들 문화재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전북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쪽방촌에 ‘식사하세요’ 한 끼 나눔

소원정사 · 자비신행회 6월10일 진행

광주 계림동에는 여인숙 거리가 있다. 일명 ‘쪽방촌’이다. 좁은 골목 안 길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여관 · 여인숙은 어림잡아 20여 개. 가장 저렴한 숙박비라 하지만 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다.

소원정사(주지 도계)와 자비신행회(대표 이화영)는 6월 10일 이곳을 찾아 ‘도계 스님의 식사하세요 · 한 끼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여관 · 여인숙 거리에 사는 주민들과 지역에 1인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계 스님은 “아직도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 가슴 아프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자비신행회 관계자는 “쪽방촌은 광주에서 마지막 가는 곳으로, 월세 1~2평 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300여 명 정도 된다. 도계 스님이 마음을 내주셔서 지역 계림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매주 한 끼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행사 의미를 말했다.



도계 스님(사진 오른쪽 첫번째)과 이화영 자비신행회 대표 등은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끼 나눔을 진행했다.

특히 이곳은 보통 국가시설에서 주는 구호식품으로 연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이 중단되면서 위기를 맞은 지역이다.

제공되는 음식도 정성이 가득하다. 소원정사 신도와 자비신행회 봉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매주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 담아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날은 도계 스님을 비롯한 김숙희 여사(이낙연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와 봉사자들은 오리탕을 주 메뉴로 하고 밥과 과일 등을 그릇에 담아 마스크와 함께 도시락 가방에 담아 주었다. 용기는 재활용으로 음식을 먹고 비워서 오면, 매주 새로운 음식을 담아 제공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